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3년도 제45호

### '체육인 인권 보호와 상생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과제'

스포츠윤리센터, 17일 '체육인 인권보호 상생' 포럼 개최

안홍석 연합뉴스기자

### 18일 오후 2시 제주현대누리터 2층대회의실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장애인 체육인 초청 인권 강연회 개최

함광렬 헤드라인제주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체력도 학력" ..학생 스포츠 '활성화'

최경식 G1기자

### 스포츠인종차별

손흥민에 인종차별 행위한 英 축구팬, 3년간 '직관 금지' 처벌

이유나 YTN기자

### 유치만 5개... "스포츠워싱우려" 지적도

월드컵·e스포츠·동계올림픽... 국제대회 싹 쓸어가는 사우디

박성우 조선비즈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스포츠윤리센터, 17일 '체육인 인권보호 상생' 포럼 개최



스포츠윤리센터는 17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체육인 인권 보호와 상생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023 스포츠윤리강화 포럼'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관계자와 선수, 지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포럼의 좌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정책연구실 조현주 선임연구원이 맡는다.

발제자로는 국제교류전략연구센터 손종욱 파트너, 경상국립대 체육교육학과 홍덕기 교수, 부경대 스마트헬스케어학부 김대희 교수가 나선다.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실 이창하 실장, 위밋업스포츠 신혜미 대표, 역도 국가대표팀 김동현 코치, 운동선수학부모연대 김창우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스포츠윤리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

# 당신의 인권, 어디까지입니까?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장애인 체육인 초청 인권 강연회 개최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이사장 양용석)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제주혼디누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체육인 및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당신의 인권, 어디까지입니까?'라는 주제로 (주)허브로지스틱스 지창석 대표와 前 탁구 패럴림픽 국가대표 조경희 선수의 공감과 소통을 활용한 퍼실리티 강연회로 진행된다.

장애인체육인 개개인의 인권 역량 강화를 위한 1,2부 참여형식의 강연과 실제 장애인 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들의 인권침해 사례 공유와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을 3부에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회의 지창석 강사는 대한장애인탁구협회 이사를 역임했고, 조경희 강사는 2012년 런던 패럴림픽 탁구 은메달리스트로 실제 장애인체육 현장의 여러사례들과 상황을 소통·공유할 수 있는 경력을 갖고 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 지원센터 소속 전문 강사이다.

양용석 이사장은 "장애인체육인 스스로 인권에 대한 역량과 인식을 꾸준히 높여 모두가 행복한 스포츠, 함께하는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늘 앞장서겠으며, 이번 강연회에 참석하는 장애인체육인 및 관계자들도 모두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장애인 스포츠계의 인권을 보장·침해 예방하기 위한 환경의 변화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장애인체육인 및 관계자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16일까지 전화, 방문, 팩스(064-722-2994), 홈페이지(www.jdpf.org), 이메일(jdadf@daum.net)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전화 064-723-2999)로 문의하면 된다.



# "체력도 학력" 학생 스포츠 '활성화'

[앵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이 학력 향상 만큼이나 신경 쓰고 있는 분야가 바로 학생들의 체력입니다.

올해는 특히 20억 원을 투입해 학생 누구나 다양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집중 지원했는데요. 학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최경식 기잡니다.

[리포터]

농구를 하는 초등학생들의 열정이 어른들 못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마련한 농구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최근 1억 원을 들여 이 학교 운동장에 농구 코트를 설치한 뒤 학생들 사이에서 농구 '붐'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 실내 체육관에 설치된 농구 코트는 주로 농구부 학생 전용으로 사용돼,

일반 학생들은 농구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학교에 이렇게 새롭게 농구 시설이 생겨서 친구들과 더 많이 얘기할 수도 있고, 더 많이 놀 수도 있게 된 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브리핑▶

"강원도 교육청이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체육 활동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20억 원을 들여 추진한 '1학교 1학생 1스포츠'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학생이 한 가지 체육 활동을 졸업 전까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217곳을 비롯해 중학교 66곳, 고등학교 7곳 등 290여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데, 학생들 반응이 좋습니다.

◀전화INT▶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체력이 많이 향상됐고요.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가 매우 증대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년에는 '1학교 1학생 1스포츠' 사업을 도내 모든 공립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G1 뉴스 최경식입니다.

# 손흥민에 인종차별 행위한 英 축구팬, 3년간 '직관 금지' 처벌

손흥민(토트넘)에게 인종차별 행위를 한 크리스털 팰리스 팬이 3년간 경기장 직관 금지 징계를 받았다.

8일(현지시각) 미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지난 5월 6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5라운드 토트넘-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적 행위를 한 축구팬 로버트 갈랜드에게 3년간 축구 경기장 출입 금지 및 벌금과 사회봉사 등의 처벌을 내렸다.

당시 갈랜드는 원정석 관중 앞을 지나던 손흥민을 향해 야유와 눈을 찌는 동양인 비하 행위를 저질렀다. 이 장면은 중계 카메라에 포착돼 소셜미디어(SNS)로 확산한 것은 물론, 구단 및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도 알려졌다.

크리스털 팰리스 구단은 갈랜드에 출입 금지를 선언했고, 8월 25일 하이베리법원은 그에게 벌금 1384파운드(약 222만 원)와 함께 60시간 사회봉사 및 향후 3년간 모든 축구 경기 현장 직관을 금지했다.

이 외에도 갈랜드가 경기 직관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경기 중에는 여권을 압수하는 처분도 내렸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지난 5월 셀허스트파크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종차별을 자행한 개인에게 내려진 경기장 3년 출입 금지 징계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적 행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번 처벌은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조치가 취해지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بطولة كأس العالم للرياضات الإلكترونية هي الخطوة الطبيعية التالية في رحلة المملكة لتصبح المركز العالمي الأول للألعاب والرياضات الإلكترونية، حيث ستقدم تجربة لا مثيل لها، تفوق ما هو متعارف عليه في القطاع. كما ستسهم في تعزيز التزامنا بتحقيق مستهدفات رؤية المملكة 2030م، بما في ذلك تنويع الاقتصاد، وتعزيز قطاع السياحة وتوفير الفرص الوظيفية في مختلف القطاعات، وتقديم ترفيه عالمي المستوى للمواطنين والمقيمين والزائرين على حد سواء.

صاحب السمو الملكي الأمير محمد بن سلمان بن عبدالعزيز ولي العهد رئيس مجلس الوزراء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 월드컵 e스포츠 동계올림픽... 국제대회 싹 쏟아지는 사우디

우리나라와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놓고 경쟁을 펼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월드컵 등 국제 행사를 잇달아 유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우디가 반체제인사·언론·여성인권 탄압 등 자국 내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을 국제대회 유치로 희석하려는 '스포츠 워싱(Sports Washing·스포츠 열기로 부정적인 평판을 없애려는 시도)'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재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현재 사우디가 유치한 국제 행사는 ▲2027 AFC 아시안컵 ▲2029 동계아시안게임 ▲2034 하계아시안게임 ▲2034 월드컵 ▲e스포츠 월드컵 등 총 5개에 달한다. 사우디 정관계, 기업이 지원하는 스포츠 후원 계약만 300개가 넘는다.

지난해 사우디는 세계 최고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1(F1)을 제다에서 열었다. 작년 6월에는 사우디 국부펀드의 지원으로 미국프로골프(PGA)의 대항마 격인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를 출범시켰고 그해 12월에는 유명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자국 프로팀인 알 나스르로 영입했다. 지난해 발롱도르 수상자 카림 벤제마(프랑스)는 알 이티하드, 브라질 축구 스타 네이마르는 알힐랄 구단에 입단했다.

사우디는 2030 세계엑스포 유치까지 추진하고 있다. 엑스포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못지않게 영향력이 큰 국제 행사로 문화·경제·기술의 발전 과정과 미래상을 선보이는 종합 박람회다. 이달 28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국이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된다. 사우디가 엑스포까지 유치하면 유명 국제대회를 독식하게 된다.

사우디는 2034 월드컵 유치가 확실해졌다. 그동안 호주와 경쟁을 펼쳐왔으나 호주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개최국 신청 마감일인 지난 1일 경쟁 참여를 철회했다. 사우디가 단독 후보가 되면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아랍 걸프만 국가에서 또 월드컵을 치를 확률이 높아졌다.

사우디는 2027년에 AFC 아시안컵도 개최한다. 당초 사우디는 유치를 놓고 인도와 경쟁했지만, 지난해 인도가 유치 참여를 철회했다.

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내년 여름부터 수도 리야드에서 매년 'E스포츠 월드컵'을 연다고 발표했다. 대회의 상금 규모는 e스포츠 역사상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초에 공개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우디가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400억달러(약 54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사우디는 2034년 하계 아시안게임과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됐다. 사우디는 동계아시안게임을 '네옴시티'에서 치르겠다는 목표다. 네옴시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로 개발 중이다.

사우디 네옴시티 내 트로제나(Trojena) 지역은 고도가 높아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평균 10도 이상 낮다. 사우디는 2026년까지 트로제나에 인공호수, 호화 호텔, 스키 리조트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왕가 네트워크와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국제대회를 독식하는 사우디에 대한 반감도 나온다. 특히 인권 문제에 민감한 유럽 국가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최근 "사우디 정부에 의해 국제 행사 유치가 스포츠 워싱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계 관계자는 "사우디의 과도한 국제 행사 유치는 부산이 왜 엑스포 개최지가 되어야 하는지 당위성을 설명하는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며 "최태원 부산 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막판 대역전극을 기대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광주 서수연 탁구 2관왕...“파리 패럴림픽 금메달 따겠다”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99365900760219008>

대한장애인파워사커협회, 제 9회 전국장애인파워사커대회 개최

<https://www.eneu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723>

“시즌 들어가기전 입장 표명한다더니”...김연경 또 저격한 이다영

<https://www.mk.co.kr/news/society/10870497>

인권·평등으로 빛난 화합의 문화체전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99354200760210004>

韓 당구연맹, 스포츠 인권의 날 3주년 인권 경영 대상

<https://www.nocutnews.co.kr/news/6028387>

"권익위서 '스포츠토토 기업조정' 등 처리... '블루오션' 될 수 있어"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deView.html?idxno=29212>

이천시, '드림패럴림픽 스포츠체험' 성료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deView.html?idxno=1220399>

[스포츠 시선] "새벽부터 밤까지 운동만 했다"가 주는 씩씩함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77526635804736&mediaCodeNo=258>

넥센타이어, 미국 4대 스포츠 중 하나인 북미아이스하키리그 '뉴욕 레인저스' 후원한다!

<https://kr.aving.net/news/articleView.html?idxno=1785978>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